“결혼이주여성 3년 만에 가족들과 함께 친정나들이 가요~”

신안군,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재개

11가정 22명 부부·자녀 등 항공권 배부·일정 전달

신안군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을 3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7일 신안군 가족센터 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에 선정된 11가정, 22명의 부부와 18세 미만 자녀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정나들이를 위한 항공권을 배부하고 일정 및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신안군은 올해 4천만원을 들여 1가정당 왕복 항공료와 교통비 등을 포함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하며 장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중 친정 나들이 기지원 여부, 다자녀, 국적취득, 교육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11가정(베트남 7, 캄보디아 3, 중국 1)을 선발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살아온 결혼이주여성의 친정 방문을 축하하며 남편과 자녀들에게 아내와 엄마의 나라 문화 체험을 통해 가족이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안전한 여행길을 당부했다.

또한, 내년도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기지원 여부, 다자녀, 국적취득, 참여도에 앞서 지인소개 결혼성사 실적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신안군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상시 한국어반 운영, 취·창업 교육, 온라인 국적 취득 교육 및 찾아가는 자녀 생활교육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언어 소통과 자녀 양육, 한국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안=이덕주 기자

목포시, ‘목포 일주일 살기’ 사업 추진

총 4회차 모집, 회차별 20팀 선정

목포시가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인 목포문화재단과 함께 3년 연속 ‘목포 일주일 살기’ 사업을 추진한다.

목포 일주일살기는 ‘한 달 여행하기’, ‘일주일 살아보기’와 같은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관광객이 직접 살아보며 낭만항구 목포의 경험, 감상을 SNS에 공유·홍보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목포 일주일 살기’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4회차로 구분 운영한다.

회차별로 20개팀(팀당 1~4인)을 모집하며 총 4회차로 구분 모집한다. 운영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이다.

1~2회차 참가자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모집하며, 운영기간은 1회차는 7월 7일부터 13일까지, 2회차는 7월 25일부터 31일까지이다. 3~4회차는 9월~10월 경 모집예정이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체류기간(4~6박) 동안 팀 인원수에 따라 1박당 최대 6만원의 숙박비를 지원받고, 관광 및 문화체험비를 할인받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광읍 시가지 빗물받이 일제 청소 추진

영광군은 퇴적물 등으로 배수처리능력이 저하된 빗물받이 청소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영광읍 시가지 일원 노면배수가 불량한 빗물받이 1,500여개를 일제 정비하여 재해예방 조치를 강화하였다.

이번 정비는 빗물받이 내 퇴적된 토사, 낙엽, 쓰레기 등을 장마철 이전 청소를 통해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조치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예방하였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어촌뉴딜 300사업’ 준비 막바지

7월 개장에 맞춰 해수풀장, 갯벌탐방로 등 완공

함평군이 역점 추진 중인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이 공정률 80%를 보이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다.

주요사업은 ▲해안안전시설 확충 ▲돌머리 커뮤니티센터 ▲귀어귀촌빌리지(8개동) ▲돌머리 방앗간 ▲해수풀장 정비 ▲돌머리·주포항 시설 및 경관 정비 등이다.

군은 오는 7월 돌머리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기존 해수풀장, 갯벌탐방로 등의 시설을 개선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수와 유황석을 활용해 땀을 빼며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돌머리 해양치유(해수찜)센터도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해수찜 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1,122㎡ 규모로 건립되며, 해수탕, 해수찜, 사우나, 카페 등 치유와 휴양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암군, 중기옴부즈만과 대불산단 기업 규제 해결

‘기업 규제 해결 현장 간담회’ 개최…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약속

영암군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16일 대불산업단지에서 ‘기업 규제 해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불산단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우승희 영암군수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대불산단 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료 감면 ▲녹지 진입도로 설치 기준 완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 확대 등에 대한 중앙부처의 답변과 개선방안이 공유됐고, 조선업 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한 토론도 열렸다.

박 옴부즈만은 사전 건의사항, 간담회 제출의견 등을 토대로 담당 부처와 협의해 기업 애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조선업이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각종 규제 등으로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부처 및 옴부즈만과 협업해 기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벼 농작물재해보험, 잊지 말고 가입하세요!”

무안군은 벼 재배 농가가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영농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2023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역농협에서 6월 23일(금)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올해도 농가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 포함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농가는 10%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분증, 경영체등록증 등 농지의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한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작물의 재해보험은 농업경영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